

올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발표

익산시, 상반기 대비 일자리·생활SOC 사업 편성·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해소 현안사업 해결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 및 고용 감소에 대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확대와 신속집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두 달 여 시기를 앞당겨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재원은 보통교부세, 순세계입여금, 내부유보금과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다.

익산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고용침체를 해소하고,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일

자리 관련 사업을 예산 편성의 최우선으로 두고, 특히 신규 발굴된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지원 사업은 적정성 검토 후 빠짐없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작년보다 국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다.

이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미처 편성되지 못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해결

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성공리에 종료된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었다.

612건의 건의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현장 방문했다.

관계법령 확인 및 부서평가회 개최 등 내부적인 검토를 마무리 한 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선정해 우선 반영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필수예산은 반영하고 있다.

사업이 취소·변경·연기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조정·

삭감하여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왔다.

김주일 기획행정국장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의회와 계속적으로 소통하여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조정 하고 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3일까지 익산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는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헤리노브를 선정했다.

익산시 귀금속보석 제조업체 '헤리노브' 선정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올해의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주)헤리노브(대표 정지필)를 선정했다.

시는 8일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귀금속보석 공업단체에 위치한 헤리노브를 우수제조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헤리노브는 2011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주)아이디언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얼리 기업으로 출발하였고 2014년 (주)아이디언제이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익산에 제조 및 개발관련 설비투자를 시작하였으며 본사를 익산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정지필 대표(45)는 "지역인재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며 HERINOV 온라인몰을 활용하여 전국에 익산의 우수한 귀금속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지속적으로 판매출을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귀금속보석 업체를 우수제조업체로 선정하고 3년간 유효한 우수제조업체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시제품개발비 지원, 귀금속 잡지 카탈로그 게재 등 지역향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원광대, 익산지역 대학로 원룸 경매피해 사건 법률지원

최근 익산지역 대학로 일부 원룸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거주 중인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가운데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는 피해 학생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 변호사협회와 함께 무료 공익소송 지원에 나섰다.

피해 학생 상담은 처음 사건 내용을 접수한 학생과에서 법무실에 요청해 지난달 29일 이루어졌다.

법무실과 법학전문대학 리걸클리닉센터, 학생과 등이 연계해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시행했다.

특히 단체 상담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심용재 교수가 향후 경매에 따른 배당요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질의 응답시간에 이어 피해구제방법 및 소송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세부 상담도 진행됐다.

또한, 학생복지처 학생과에서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 방지를 위해 익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조에 나서 단수 유예 조치 등

행정 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

상담을 시행한 법무실과 리걸클리닉센터 및 학생과는 앞으로도 피해 학생이 있다.

학생들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소송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방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 학기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피해자가 재학생 87명, 졸업생 16명을 비롯했다.

일반인 등 총 120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원광대는 익산시 변호사협회(대표 양승일 외 19인)와 연계하여 진행한 다.

무료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있다.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인 등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생복지처 학생과에서 오는 15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향후 절차에 따라 피해 학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생산농가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군산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5월 31일까지 신청 받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복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다.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원에농협에 출하를 이행하는 1,000㎡~1만㎡의 규모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운영업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관내 불법폐기물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안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가 파악한 불법폐기물은 총 1만 5,000톤이다.

55%에 해당하는 8,300톤은 제주시에 서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창고에

방치한 폐기물이다.

시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로 원인자를 찾아내고 조치명령을 취했다.

올해 안에 행정처분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또 폐기물이 처리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제주시의 폐기물은 제주시에서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조속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을 수시 파악하고 있다"며 "발생우려사 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원천적으로 발생을 막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8일부터 이틀간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익산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고문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분야별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 '자치분권시대 흐름 이해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등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왔다.

전문교육과 '웃음과 행복', '마한·백제시대 익산의 역사적 특성' 등 인문학적 강의가 병행됐다.

또한 소문의 시간을 가지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이 어려울 줄 더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주민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위원장과 위원들을 발굴해 왔다.

도지사 표창 5명, 익산시장 표창 29명, 익산경찰서장 표창 3명 등 총 37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여름철 폭염 대비 스프링클러 지원

군산시가 올해 처음 관내 거주 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지용 스프링클러 시설을 지원한다.

올해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작물 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작물물 피해를 예방하기 총 5,6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작물 재배 농업인대상으로 노지용 스프링클러, 물통, 모터, 기타부속을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면적규모가 영세한 농가, 고령농, 여성농, 친환경 인증농가,

주변농가 활용도가 많은 농가 순이며 사업 단가는 330㎡당 150만원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으로 장기적 폭염에 따른 재년에 대응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율 시장 발 빠른 현장행정 '호응'

정현율 익산시장이 초등학교 통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개선을 약속하는 등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정 시장은 9일 이리동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찾아 주변 도로 일대를 둘러보며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제기한 통학로의 문제점을 직접 점검했다.

정 시장은 동산제일오투그라운드에서 동산초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에 인도 설치를 서두르고 휴먼시아이퍼트

에서 동산초까지 도로 좌측에 인도를 확보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학부모님들일 것"이라며 "앞으로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반영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장양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